Social Value and Social Innovation

Toward a Symbiotically Sustainable Community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

지속가능한 상생공동체를 위하여

박명규 · 이재열 엮음

경제적 가치가 지배하던 고도성장기, 정치의 가치가 지배하던 민주화 시기를 거친 한국은 이제 사회적 가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고, 이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사회혁신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 필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이 시점에 왜 사회적 가치가 요청되는지, 그동안 한국적 실천이 드러낸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상생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어떤 다면적 노력이 요구되는지를 점토하고 있다.

한울
아카데미

차례

서문 8

들어가기

제1장 사회적 가치의 다차원적 구조 _박명규 14

제1부 사회적 가치와 시장경제

제2장 시장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공동체를 이야기하기 _최정규 54

제3장 생존을 넘어 사회적 가치로 _김홍중 71

제4장 사회적 자본의 경제적 중요성 _김병연 101

제5장 데이터 경제 시대의 사회혁신 _강정한 128

제2부 사회적 가치의 한국적 실천

제6장 사회적 경제의 조건: 원주와 홍성의 교훈 _엄한진 152

제7장 창조성과 공공성의 긴장: 문화예술협동조합의 사례 _조형근 187

제8장 사회의 혁신과 세대의 역할 _이원재 A 222

제9장 지방정부의 사회적 가치 확산:
서울시의 의사소통형 정책 거버넌스의 사례 _이원재 B 239

제3부 사회적 가치와 다면적 사회혁신

제10장 공공가치 융합시대의 사회혁신 _장용석·황정윤 258

제11장 기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측정: 화폐가치 환산을 중심으로 _라준영 281

제12장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적정기술 _윤제용 312

제13장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성 _한상진 333

나가기

제14장 시대적 전환과 사회적 가치 _이재열 358

참고문헌 406

찾아보기 426

글쓴이 (가나다순)

강정한 __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다.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 사회학 석사를 거쳐 시카고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구분야는 수리사회학, data science, 경제조직사회학 등이며,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등에 주요 논문이 소개되었다.

김병연 __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영국 에섹스 대학교와 서강대학교에서 조교수와 부교수로 재직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구(舊)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이행, 북한경제, 비(非)경제적 변수의 경제적 효과 등이다.

김홍중 __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프랑스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된 관심분야는 사회이론과 문화사회학이다. 『마음의 사회학』을 냈고, '꿈'의 사회학적 이론화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라준영 __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공학과에서 학사·석사 과정을 마치고 동 대학에서 경영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분야는 기업과 사회, 사회적 기업, 사회적 가치 측정, 사회적 금융이다.

박명규 __ 서울대학교 사회학교 교수다.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버드-옌칭연구소, 버클리대학교 등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냈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한국사회사, 개념사, 정체성, 남북관계 등을 연구하고 있다.

엄한진 __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다. 프랑스 파리3대학에서 북아프리카학 석사학위를, 파리8대학에서 정치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된 관심분야는 이민, 종교, 아랍세계, 사회적 경제다. 『프랑스 이민사』, 『이슬람문제』, 『다문화사회』 등의 저서를 출간했다.

윤제용 __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환경공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학기술과 에너지저장기술을 통한 수처리 및 자원회수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 회장을 지냈고 적정기술학회 공동회장이다.

이원재 A __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사·석사학위를, 시카고 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소셜네트워크 분석과 사회교환이론에 기반한 경제현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예술, 역사, 대중음악, 문학, SNS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위와 성과에 대한 사회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있다.

이원재 B __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실험실인 'LAB2050'의 대표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에서 MBA를 마쳤으며 한겨레신문 기자, 한겨레경제연구소장,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희망제작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사회혁신활동에 관심을 갖고 연구와 실천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재열 __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조직사회학, 네트워크 사회, 위험사회분석 등이고, 최근 연구주제는 사회의 질, 사회적 가치, 사회적 웰빙 등이다.

장용석 __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유타 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조교수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조교수와 부교수로 재직했다. 주된 관심분야는 사회혁신과 사회적 기업, 제도주의 조직론, 거버넌스 연구 등이다.

조형근 __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HK연구교수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일제시기 재래시장 연구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된 연구분야는 사회적 경제론과 대중문화론 등이다. 경제적 행동과 문화적 특성을 연결 짓는 작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최정규 __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애머스트 소재 메사추세츠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뉴멕시코 산타페연구소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있었다. 이타성과 상호성의 역할을 규명하고 이러한 행동성향이 진화해온 경로를 연구하고 있다.

한상진 __ 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서울대학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환경문제, 생태주의에 관심이 많다. 주된 연구분야는 환경사회학, 사회적 경제, 생태복지론 등으로 『국가와 시정을 넘어』 등의 저서가 있다.

황정윤 __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주된 관심분야는 사회적 혁신과 사회적 기업, 성과관리와 조직이론이다.

서문

경제적 가치가 지배하던 고도성장기, 정치의 가치가 지배하던 민주화 시기를 거친 한국은 이제 사회적 가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성장과 민주화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고, 이를 풀어나가려면 대대적인 사회혁신이 필요하다. 사회적 가치가 한국 사회에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는 증상들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9대에 이어 제20대 국회에서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증진'을 표방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이다. 2018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정부정책의 중심을 '사회적 가치'에 두겠다고 했다. 행정자치부 장관도 사회적 가치가 정부 운영의 중심이라고 선언했다. 예산 편성이나 인사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실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항목의 비중도 늘리기로 했다. 여러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가치 전담 부서를 만든다는 소식도 들린다. 공공부문만이 아니다. 한국의 대표적 기업그룹 중 하나인 SK는 재무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기업 운영의 더블바텀라인(Double Bottom Line: DBL)으로 설정하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금융시장도 급변하고 있다. 수익을 올리는 일 외에 공공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구현을 목표로 하는 '임팩트 금융'이 2018년에만 40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론들이 전한다.

그런데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왜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는 불충분하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약자,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의 공공성을 사회적 가치로 간주한다. 혹자는 영리기업과 달리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사회적 가치와 동일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또는 공공성을 내세운 사회정책과 동일시될 수 없다.

그렇다면 사회적 가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21세기의 시대정신이다. 사회적 흐름을 견인할 근원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기획의 잣대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표상되는 기술문명의 도래가 우리를 유토피아로 이끌지, 혹은 디스토피아에 빠뜨릴지 불분명한 전환기에 반드시 챙겨야 할 가치원리다. 세계가 복잡하게 연결되고 지구촌 곳곳이 상호 연동되는 시·공간 단축의 시대에 20세기적 패러다임에 안주해서는 발전은커녕 현상 유지도 어렵다. 정부도, 기업도, 시민도 우리에게 낯익은 성장, 발전, 개인, 경쟁 등의 가치를 넘어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가치는 유엔, 개별 국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주창하고 토론해야 하는 글로벌 과제다.

사회적 가치는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힘이다. 그래서 인류가 함께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새롭게 자각하는 문화운동을 가능케 한다. 신자유주의 경쟁이 초래한 공동체의 해체, 양극화의 고통, 소외와 낙오, 인간성의 파탄을 극복하기 위한 21세기형 공동체론이 바로 사회적 가치다. 젊은이의 취업난, 결혼 기피와 저출산, 은퇴자의 노후 불안, 계층적 양극화와 사회적 활력 저하, 미세먼지와 쓰레기 대란 등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사회적 가치인 셈이다. 각자도생과 경쟁만능의 문화를 넘어서 공존과 배려,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생활양식을 창출하려는 시도다.

사회적 가치는 혁신을 사회화하는 원천이다. 표준화된 방식, 강제된 규범, 모방형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개성과 자율, 창의와 혁신의 정신을 사회화하려는 총체적 문화기획이다. 지금은 혁신적이라면, 아무리 작은 아이디어도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산업화할 수 있는 초연결 시대다. 혁신적 세대를 키우려면 그들이 과감한 도전을 실천하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교육을 구상해야 한다. 혁신 행동을 북돋우려면 문화적 심성을 배양할 사회적 인프라가 필요하다. 종합적

변화의 에너지인 사회적 가치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한정되지 않고 학교와 종교, 문화단체 전반에까지 추구되고 배양되어야 할 요소다.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 지속가능한 상생공동체를 위하여』는 사회적 가치의 내용과 실제, 그 다차원적인 모습을 종합적으로 탐색하고자 한국사회학회가 중심이 되어 수행한 공동연구의 결과물이다. 제59대 회장이자 연구책임자이기도 한 박명규를 비롯한 14명의 사회학자, 경영학자, 경제학자, 행정학자, 공학자 등이 모두 네 차례의 내부 세미나와 '사회적 가치: 협력, 혁신, 책임의 제도화'라는 제목으로 개최한 공개 심포지엄(2017년 11월 9일)에서 발표하고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여 장별로 집필했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제도화하는 데서 드러난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를 해결할 것인지 '사회적 가치, 제도화의 현안과 방향은?'이라는 제목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 참여자들은 모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직접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활동해온 분들이다.

이 책은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움을 준 여러 분들의 성원에 빚진 바 크다. 무엇보다도 연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필요한 연구비를 지원해준 SK 사회공헌위원회 최광철 위원장과 행복나눔재단에 감사드린다. 연구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준 SK SUPEX 추구협의회 정현천 전무와 (재)사회적가치연구원 서재혁 원장에게도 감사드린다. 사회성과 인센티브 어워드 행사(2017년 4월 20일)에서 '사회적 가치의 미래와 기업/제도의 역할'이란 좌담회로 일부 내용이 발표되도록 애써준 (재)사회적가치연구원 박성훈 수석연구원, 학술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힘을 보태준 서울대학교 사회공헌교수협의회 안규리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동안 실무적인 수고를 해준 한림대학교 조형근 교수, 연구조교로서 온갖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한솔, 그리고 신속하게 행정지원을 해 준 한국사회학회 신아름 사무국장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또 출판계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중요성에 흔쾌히 공감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출간될 수 있도록 도와준 한울엠플러스(주) 김종수 대표와 이원기 실장, 그리고 꼼꼼하게 편집과정을 챙겨준 배유진 팀장에게 더할 나위 없이 고맙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바쁜 시간을 내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이 연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필자 여러분에게 최대의 감사를 드려야 마땅할 터이다. 이 책이 한국 사회에 새로운 가치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소망한다.

2018년 5월

필자를 대표하여

박명규·이재열